

「산모-신생아 전문 도우미」 인기

출산뒤 체조 젖먹이기 아기목욕등 모두 맡아

해가족화로 산모를 돌보아줄 사람이 모자라게 되면서 「산모 신생아 전문 도우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5세 미만 고졸이상학력의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과정을 처음 개설한 이후 최근까지 3기에 걸쳐 53명을 교육, 활동중인데 산모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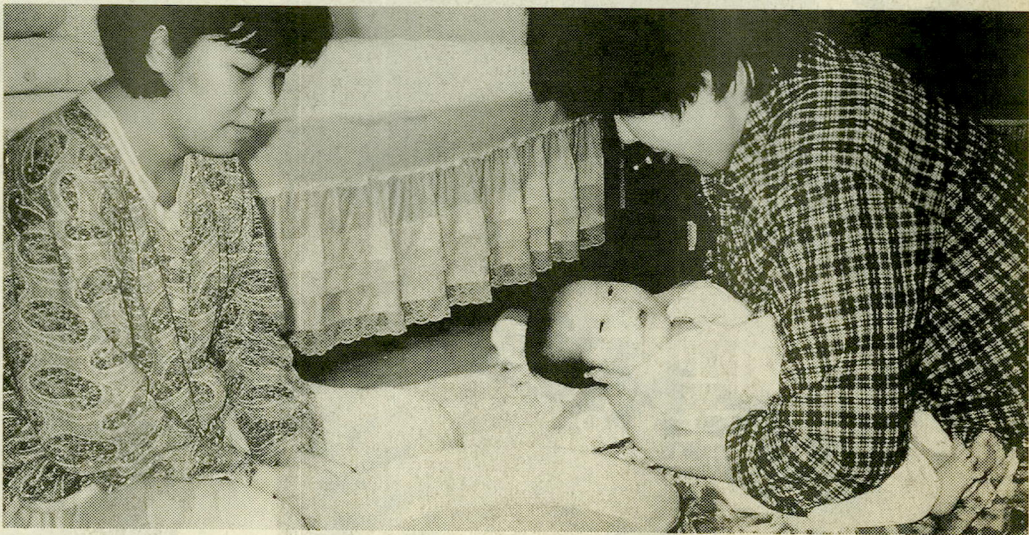
교육과정은 산모의 질환과 합병증 신생아의 특징 유방관리 산후체조 피임법 균형있는 영양섭취등으로 이루어져 있

울성북구정릉동 첫 딸을 낳은 산모집에 머물며 아기목욕은 물론 산모체조지도 모유수유법 유방마사지법등 산후관리와 갱난아기 관리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남편이나 애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목욕을 하고 난뒤 새근거리고 자는 갱난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면 세상근심을 잊는다고 한다.

산모 趙씨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인지 아이에게 그렇게 잘해 줄 수가 없다」면서 환히 웃었다.

趙씨는 「친구들의 말을 듣



산모의 산후조리와 갱난아기의 건강을 전문으로 돌봐주는 「산모 신생아 전문 도우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계획協 코스 이수 53명 활약 낮근무 3만원... 숙식팬 4만원선

다. 초기에는 「과출부」와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부 수요자들 때문에 「도우미」들이 고충을 겪기도 했으나 차츰 전문성을 이해하게 돼 이제는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자부심을 스스로 없이 드러낸다.

교사출신으로 도우미활동을 하는 任모씨(52)는 「3남매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내일을 찾고싶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남편은 물론 아이들도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보람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任씨는 지난 10월말부터 서

고 도우미를 구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난 것 같다」면서 아이목욕을 시키는任씨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같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제도의 단점은 역시 비용이다.

숙식을 할 경우 하루 4만원이라는 비용이 만만치않아 웬만한 가정에서는 좋은 줄 알면서도 이용하기 어렵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3만원이나 든다.

1천여명의 신생아 조산경험을 토대로 도우미들에게 신생

아관리를 강의하고 있는 가족계획협회 李粉子씨는 「산모들은 24시간 도우미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우미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낮근무를 원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가족계획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서울대화 기독교사회복지관등 사회단체에서도 산모전문관리인력을 교육시키고 있다.

(趙憲注)